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광야에서 들려오는 이름

재를 이마에 얹던 날,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흠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숨으로 살아 있는 흠이라는 것을.

광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말이 입술에서 말라버릴 때,
하느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주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속삭임 앞에서,
힘으로 세상을 얻으라는 유혹 앞에서,
하느님 없이도 괜찮다는 가장 깊은 거짓 앞에서
주님은 침묵 속에 성령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사순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조용히 풀려나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목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순의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2/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7,655
현재 참가 인원 - 103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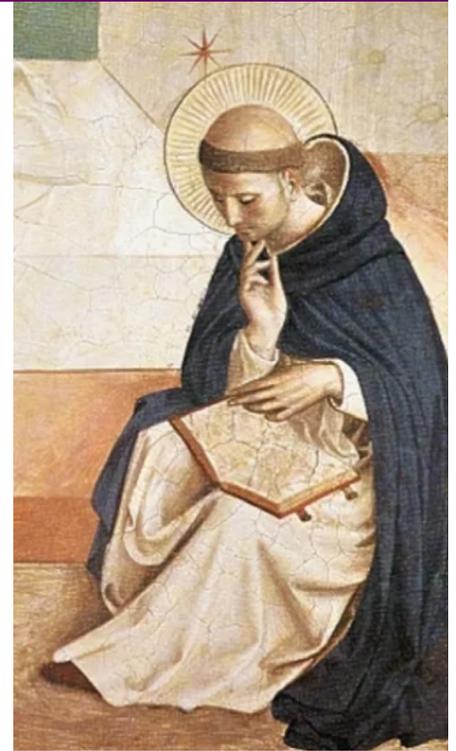
연중 제 6주일 (2/1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1명	-	465명	-	-	506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24	예물 준비 성가: 217, 219	성체 성가: 160, 186	파견 성가: 115
-------	------------	--------------------	-----------------	------------



성 도미니코

이단에 맞서 정통 교리를 전파 설교자회 도미니코회 창설



12~13세기의 교회는 제2차,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이단자」들의 척결을 논의할 만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여러 이단 운동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특히 가타리(Cathari)파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 광범위하게 퍼져 기사, 귀족, 영주,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까지 추종자가 생기는 현상을 빚었다. 이들은 교회를 부정하고 마니교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을 믿으며, 교계 제도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순회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모았다. 이들의 세력 확장은 교회는 물론 국가의 질서마저 무너뜨릴 우려를 낳았고, 심지어 이단 조사를 위해 파견된 교황 사절이 암살되기도 했다. 또한 알비(Albi) 지방의 가타리파를 근절할 목적으로 십자군이 조직되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미니코수도회(일명 설교자 수도회, Ordo Praedicatorum)의 창설자인 성 도미니코(Dominicus, 1170~1221)는 프란치스코 성인과 함께 12~13세기 교회 쇠신에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가타리파 등 이단에 맞서 교회의 정통 교리를 전파했으며, 수도회 설립 역시 그러한 참된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페인 북부 칼라루에가(Calaruega)에서 출생한 도미니코는 사제였던 삼촌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성직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중심지로 유명한 팔렌치아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의해 성직의 길을 걷도록 양육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자들은 자녀를 가지면 일찍부터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성직을 준비하는 자녀를 두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성인의 탄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일화도 전해진다. 그의 어머니는 환한 빛의 등불을 입에 문 강아지 한 마리가 품속으로 들어와 그 등불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몽을 꾸었다. 이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쳐 예수님께로 인도할 위대한 설교자를 잉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또 성인은 이마에 반달 모양의 상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꾸었던 꿈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공부를 마친 도미니코는 교황 교구 오스마(Osma) 주교좌 성당의 참사위원이 되었다. 참사위원이란 중세 유럽 주교좌 성당의 제도로, 성당 중앙 제단 주변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하는 사제들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공동생활을 시작한 도미니코는 외교 사절로 덴마크 등 북부 유럽을 다니면서 이단 운동에 위협받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목격했고, 그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이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 의해 이단에 대응하기 위한 시토회 설교 수도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도미니코는 9년 동안 이들과 함께 사목하면서 설교자회 창설을 구상했다. 이단의 위협에 빠진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같은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도회가 필요하다는 절감 때문이었다. 그가 구상한 수도회는 절대 청빈에 바탕을 두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며 사람들의 회개와 개종을 촉구하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수도회였다. 1215년 툴루즈(Toulouse)에서 첫 회원을 모집하고 풀크(Fulk)

주교의 허락 아래 활동을 시작한 도미니코는, 1216년 교황 호노리오 3세로부터 단체를 인준하는 교황 문서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수도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교황청에서 발행한 공문을 통해 명실상부한 설교자 수도회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교회 상황에서 설교할 권한이 주교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교황청의 인준은 수도 생활 안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목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증언에 따르면 도미니코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항상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했고,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1233년부터 시작된 그의 시성 절차에서 증언자로 나선 사람들은 “그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했으며, 밤새도록 기도하곤 했다. 때로는 그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 때문에 형제들이 잠에서 깨기도 했다”고 전했다. 도미니코는 교회와 복음의 진리에 열렬히 헌신했으며, 동시에 여러 운동이나 공식적인 교회의 한계 너머에 있는 참된 가치에도 민감한 사람이었다. 다감한 성품을 지녔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는 달리, 도미니코는 의지가 강하고 통솔력도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지 사항

1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시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 미사 전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9:00까지 판공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2/22(주일)
● 음식 봉사 : Bothell 구역
● 메뉴 : 소불고기 덮밥

5 특별 헌금(Special Collection)

● 일시 : 2/28(토) -3/1(주일)
시애틀 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소식지인 Northwest Catholic 운영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6 청년회 2026 사순피정

● 일시 : 3/20(금)-3/22(주일)
● 장소 :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 : 청년
● 참가비 : 학생 \$60, 직장인 \$80
● 신청 마감 : 3/1(주일)까지
● 문의 : 청년회장 김스텔라 425-368-8814



7 봄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

① **축복받은 성경 읽기**
● 대상 :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복음반
주 1회 부담 없이 모여 성경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②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대상 : 각 전 단계 공부를 마친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임 시작 : 그룹별로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신청 기한 : 2/27(금)까지
● 담당 : 교육분과장 최정필 미카엘

8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 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1독서..... 창세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답송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2독서..... 로마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마태 .4,1-11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차태진 이계숙 이승우 곽노환 이지연 박원규 이천우 유애림 신 정 한천혜 유영림 송재민 유주연 신광호 강승호 박수익 신경협 이성준 심진수 이승호 김창문 이경원 김종국 윤명진 장병순 오재호 김영주 정젼마 박현수 이장원 유경종 Sun Ki Choe Kyung Paik
[교무금 Push Pay] 최새봄 김종대 최혜숙 김 철 이경아 백승진 이재용 이서영 안마슈 최종국 안정희 구미경 박주원 김형근 성효진 유현주 조성욱 강봉조 이상철 황현선 **[감사헌금]** 이명희 탁희선 전문주 익명(2)
[광고비] Bridge Tax Services(김효진 릿다) **[성소 후원회비]**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2차 헌금(Church in Latin America)	Opening Deposit	광고비	감사헌금
\$7,465.00	\$7,057.30	\$4,574.08	\$1,273.00	\$200.00	\$250.00	\$2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2/26/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교황청 신앙교리부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 (Mater Populi Fidelis)

〈지난주에 이어서〉

21.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 사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며 다음과 같이 논증하셨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어떤 것도 결코 자신을 위하여 취하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공동 구속자로 내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완전하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호칭도 빼앗으려 하지 않으셨다. …… 성모님께서서는 스스로 준(準)구속자 또는 공동 구속자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으셨다. 구세주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고, 이 호칭은 중복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구속주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구속자는 없다.” “사랑과 순명의 정신으로 봉헌된 십자가의 희생 제사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무한한 보속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효력을 세상 안에서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콜로 1,24 참조), 교회도 마리아도 강생하신 하느님 아드님의 완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구속 사업을 대체하거나 완성하지 못한다.

22. 구속 사업에서 그리스도께 종속된 마리아의 역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마리아의 협력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부적절하다. 이 호칭은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구원 중개를 흐려지게 만들 위험이 있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들이 이루는 조화에 혼란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어떤 표현이 정확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많은 설명이 필요할 때, 이는 하느님 백성의 믿음에 이롭기는커녕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구속과 은총의 활동에서 가장 으뜸가는 협력자로 칭송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표현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성부께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가릴 위험이 있다. 이는 그분의 어머니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주님의 종”(루카 1,38)이신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신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중개자

23. 중개라는 개념은 6세기부터 동방 교회 교부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몇 세기에 걸쳐 크레타의 안드레아 성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르마노 성인, 다마스쿠스의 요한 성인은 이 호칭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서방에서는 12세기부터 이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었지만,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인 교리 명제로 정립되었다. 1921년 메헬렌 대교구장 메르시에 추기경은 루뱅 가톨릭 대학교의 학문적 협력과 벨기에 주교, 성직자, 평신도의 지지를 받아 베네딕토 15세 교황에게 마리아의 보편적 중개에 관한 교의 결정을 발표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베네딕토 15세 교황께서는 이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중개자 마리아 축일만을 그 고유 미사와 성무일도와 함께 승인하셨다. 그때부터 1950년까지 이 문제에 관한 신학 연구가 계속 발전

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공의회는 교의 선언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부여해야 할 위치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광범한 종합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24.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대한 성경 말씀은 단호하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개자 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1티모 2,5-6).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느님 아드님이시고 몸소 받아들이신 인성과 위격적으로 결합되어 계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위치를 명확히 밝혀 왔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고유한 것이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은 오직 그분께만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강생하신 말씀의 역할은 배타적이고 유일무이하다. 계시된 하느님 말씀에 담긴 이러한 명확한 측면을 고려할 때, 마리아께 ‘중개자’라는 호칭을 적용할 때에는 특별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호칭을 통하여 마리아의 협력의 범위를 넓히려는 경향에 대응하여, 이 호칭이 지니는 가치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5. 한편으로, 우리는 ‘중개’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며 단순히 협력, 조력, 전구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마리아에게 반드시 종속적인 의미로 적용되고, 여기에 참 하느님이요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어떤 효력이나 힘을 더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들어 있지 않다.



26.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 인류 가운데 강생하실 수 있도록 참된 중개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실]”(갈라 4,4) 것이었기 때문이다. 탄생 예고 이야기는 이것이 생물학적 중개만이 아님을 보여 준다. 질문을 하시고(루카 1,29.34 참조),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fiat)(루카 1,38) 하시며 확고한 결심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시는 마리아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리아의 응답으로 온 인류가 기다려 왔고 성인들이 시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해 왔던 구원의 문이 열렸다. 마리아께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신랑 신부의 필요를 예수님께 전하시고(요한 2,3 참조)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르라고 이르시면서(요한 2,5 참조) 중개 역할을 수행하신다.

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개라는 용어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된다. 때로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언급되지만, 그 중개는 명백히 종속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공의회는 마리아에 대하여 다른 용어, 곧 협력이나 모성적 도움에 초점을 맞춘 용어 사용을 더 선호한다. 공의회는 가르침은 “수많은 전구”와 “어머니의 이러한 도우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리아의 모성적 전구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두 측면이 함께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협력의 특수성을 이룬다. 엄밀히 말하자면,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중개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은총의 중개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당신의 강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고, 구세사의 총만이시며 중심이시라는 진리는 교회 신앙의 변함 없는 요소로 굳게 믿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고 결코 묻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 안에서의 마리아

28.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중개의 유일성은 ‘포용적’이라는 사실을, 곧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의 완성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개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친교 안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모로든 하느님의 협력자요 우리 서로의 ‘중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코린 3,9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의 지극히 높고 무한한 권능으로, 당신 계획의 성취에 참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형제자매들을 드높여 주실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도 ……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 참여적 중개의 내용을 더욱 깊이 탐구하여야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의 원리와 언제나 부합하여야 한다.”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효력을 시간 안에 연장하고 모든 곳에 전하며 마리아께서는 어머니인 교회의 심장부에서 유일무이한 자리에 계신다.

29.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 활동에 대한 믿는 이들의 협력을 복돋고 변화시키며 가능하게 하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할 때,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나약함이나 무능력함 또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그럽이 우리를 당신 활동의 협력자로 참여시키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 은총에 이끌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 주실 때 마침내 그분 권능과 자비의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것이다.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30.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특히 빛을 발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요한 14,12). 부활하시어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능가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는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영광의 그리스도와 결합한 덕분이다. 초대 교회의 놀라운 확장이라는 예에서 증명되었듯, 부활하신 분께서 당신의 일에 당신 교회가 동참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

다(마르 16,15 참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가시화되어, 믿는 이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당신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권능으로서 드러난다.

31. 교회의 교부들은 요한 복음 7장 37-39 절에 대한 주해들을 통하여 이러한 전망을 탁월하게 표현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들”은 믿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변화된 믿는 이들 자신이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샘이 된다. 오리게네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요한 복음 7장 38절에 기록된 당신의 선포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설명하였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은 우물들, 샘들, 강들을 품고 있고 또 흘러나오게도 할 수 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영원한 생명의 샘이 그대 안에 넘쳐흐르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 믿는 이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다양한 선물을 지체 없이 나누는다면 그의 마음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32. 참으로 모든 믿는 이가 은총으로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맡기게 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협력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마리아의 협력은 단연코 고유하고도 숭고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야 마땅하다.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가득한 이”(루카 1,28)시며 하느님의 일에 그 어떤 걸림돌도 없게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께서는 구원과 은총의 창조주를 세상에 낳아 주신 어머니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수난하시고 칼에 꿰질린 어머니 마음의 아픔을 봉헌하시면서(루카 2,35 참조) 십자가 발치에 걸연히 서 계셨던 분이시다(요한 19,25 참조). 그리스도의 강생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마리아께서는 그 어떤 신자도 도달할 수 없는 유일하고 탁월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계셨다.

〈다음주에 계속〉